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경주시
- 나아지역아동센터



2019. 1

김*리

이화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봉사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수당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많은 경험이 있었으나 다른 지역에 가 교육 봉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떨리고 설렘이었습니다. 또 온전히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팀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임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이 많은 아이들이라 서로 다정다감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약간은 산만해 봉사단에게 어려움을 안겼던 아이들이 시가니 갈수록 저과 노력이 쌓여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마음 한 켠이 따스해졌습니다. 봉사 기간 중 갑작스럽게 몸이 나빠져 당혹스러웠으나 봉사단원들의 섬세한 배려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팠던 탓에 원활하게 진행을 돕지 못한 것 같아 책임감을 통감하지만 한 편으로는 단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조금은 서먹했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깜짝 선물로 롤링페이퍼도 안겨주어 저에게는 평생 잊기 어려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달아 다음에도 오세요 하며 안기는 아이들을 보니 벌써부터 경주가 그리워 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센터분들께서 다양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해주셔서 한층 더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봉사 준비를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센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봉사에 더 임하고 싶고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사란 마음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

저는 작년 여름 이화봉사단 때 나아지역아동센터에서의 좋은 기억으로 이번 겨울 이화봉사단에도 지원했고 그때와 같이 나아지역아동센터로 교육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당시에는 단순히 그때의 아이들이 다시 보고 싶어서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한 차례 봉사를 다시 다녀오니 봉사는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첫 날 아이들이 작년에 봤던 저를 알아보주고 반가워해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여름에 '꼭 다시 올게'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는데 그 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번 봉사 때 보다는 수월했지만 상황에 따라 팀원들이 수업 내용을 조정해가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무사히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좋아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차고 기뻐했습니다.

봉사는 한 사람을 다른 판단 없이 그 자체로 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5일간 온전히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다른 생각 없이 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 아직 기억에 생생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번 이화봉사단은 저에게는 처음 활동하는 교육봉사였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이들을 잘 통솔하고,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데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갔던 팀원들, 이화봉사 계획 과정에서의 교육들과 여러 세미나들은 제 걱정을 한 시름 덜게 해줬습니다. 교육을 받고 봉사단 관련 교직원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데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봉사 경험이 있고 성숙한 팀원들 덕분에 5일간의 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본 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저번 기수에 해당 센터로 갔던 봉사단들이 이번에도 참여하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하기에 아이들 마다 생각이나 행동하는 방향이 달랐고,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개인적 성향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숙소에서 팀원들과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지, 통솔이 힘든 아이는 특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반영하여 아이들을 가르치자 아이들과 더욱 친해지고,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각각 봉사 단원에게 주었습니다. 5일 동안 여러 일이 많았고 우여곡절이었지만 아이들이 봉사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5일 동안의 이화봉사단에서의 경험은 값집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고민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아이들을 계속 생각해서 다음 날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생각하고, 시간이나 아이들의 집중에 맞춰서 일정이나 방식을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눈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책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으로서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빈

단지 과목별 교육봉사가 아닌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첫 봉사였기 때문에 많이 서투른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서툰 부분들을 같이하는 친구들이 채워주었고 힘들 때마다 조언이나 용기를 주었다. 친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보람찬 4박 5일을 보낼 수 있었다.

사실 어린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깨달으면서 통제할 수 있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말을 들어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 수업 중에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고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정말 뿌듯하고 서운한 것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너무 예뻐보였다. 내가 이친구들을 위해서라고 심적으로 더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은 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온전히 4박 5일을 나보다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을 쏟고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봄으로써 그들의 순수한 생각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솔직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이 또한 그림다. 솔직한 감정표현 어쩌면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조*지

지난 여름 나아지역아동센터에 다녀온 후 그 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고 이번 겨울에도 나아지역아동센터에 이화봉사단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센터는 여전히 따뜻했고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싶었다며 달려오는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봉사를 꾸준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봉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자해야하지만 물질적으로 얻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작은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봉사를 하는 저에게 주는 선물 같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리더십, 인내심, 이해력 등 다양한 능력들을 끌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안할래요", "싫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몸은 열심히 저희를 따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난 봉사 때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되었고 이번 봉사에서는 이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봉사 때는 말도 몇 마디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과 마지막날 포옹을 하며 헤어질 수 있었고, 친해지지 못했던 아이들이 편지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봉사 때보단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봉사를 가게 된다면 보다 나아지고 싶습니다.

기획단의 활동도 많았고 저희가 준비한 활동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무사히 끝낼 수 있던 것은 다 저희 팀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센터에 와보아서 센터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팀원들과 순발력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준 팀원들이 모여 여러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박 5일간의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이런 값진 시간을 갖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허*정

여름 이화봉사단 활동을 마치며 아이들에게 꼭 다시 오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저번 봉사과 차별을 뒤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기도 했지만,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출발해서 센터에 도착해보니 아이들이 지난 봉사 때 왔던 봉사단원들을 반겨주었고 이와 함께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기획단의 주제는 세계 여행(영어 교육)이라면 나아지역 봉사단원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 더 알려주고 싶었고 몸소 체험해보고 설명을 들으며 많이 알아가길 바랐습니다. 과거에 맞춰 전통 놀이를 준비하고, 현재에 맞춰 유명한 장소를 소개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춰 유망 직업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녀온 이번 봉사도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항상 이화봉사단을 통해 좋은 단원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봉사단원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다들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어 지치지 않고 준비하고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만나는 아이들이 지난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의와 존중'이라는 아이들 입장에서 다소 재미없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마칠 때에도 가지 말라고 잡는 아이들을 보며 여름에 또 와야 되나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또 드는 이유는 그만큼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얻어가는 것과 배워가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단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신 센터장님과 센터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화봉사단은 제 대학생활에서 잊히지 않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